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 20호
2019. 3. 11
봄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 우원식 편집인: 홍순계
TEL: 02)734-8851~2 FAX: 02)722-0251 <http://cafe.daum.net/hongbumdo>



기념사업회 2019년도 정기총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2019년도 사업계획안 등 의결
부이사장으로 황원섭 이사, 상임이사 홍순계 이사 선출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낮 국회의원회관 국화룸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이사장을 비롯하여 회원 25명이 참석하여 오찬을 겸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금년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에 관련된 영화와 연극 등 많은 행사가 있어 홍범도 장군의 위업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기념사업 활성화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이사장의 주재로 공식 중인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 선출안을 상정하여 황원섭 이사를 부이사장으로, 홍순계 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출했다. 한편 정관 제21조에 따라 “홍범도장군 기념사업 활성화 T/F팀”을 구성하여 영화 상영과 연극 공연 등 고조된 분위기를 계기로 기념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팀원으로는 우선 김경호, 홍이표, 한동건, 홍순계, 정내하, 김도경 이사가 모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팀원은 추후 더 보강하여 개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황원섭 부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안건 처리에서, 정관에 따른 2018년도 세입세출안 보고안을 전원 박수로 가결했다. 수입총액은 1억 671만 원이고 세출은 9,713만 원으로, 957만 원을 2019년으로 이월했다.

201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봉오동전투 전승 99주년 기념 국민대회를 6월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하고, 홍범도 장군 순국76주년 추모행사와 학술회의는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회보 “날으는 홍범도장군”은 계간으로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서울시와 비영리민간단체 협력사업으로 러시아 연해주 홍범도 장군 유적지를 답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의안 처리가 끝난 후 자유토론에서 장치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연해주 답사 시 참고하도록 선친인 장도빈 선생과 홍범도 장군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연해주의 발해 유적지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정내하 이사는 성남시에서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독립운동 전시회와 홍범도 장군 만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성남시와의 협조를 제안했다.

<이사장 인사말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열기에 힘입어 홍범도장군의 위업을 현창하는 계기로 삼자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몸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뜻을 이어가는 일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작년 8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총회에서 이종찬 전임 이사장의 뒤를 이어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당연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독립전쟁의 최고의 영웅인 장군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저는 윤리위의 사직 권고는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즉각 재심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피할 수 없는 저의 숙명입니다.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어 비참한 말년을 보내다 돌아가신 홍범도 장군을 위한 사업이야말로,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 정책에 저항하다 처형된 독립운동가 김한(金翰)선생의 후손인 제가 말아야 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홍범도장군 기념사업은 또한, 나라 잃은 백성이 된 것도 모자라 머나먼 타국으로 강제이주 된 고려인들에 대한 우리의 부채의식도 씻는 일입니다. 강제이주 희생자의 외손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제가 홍범도 장군을 통하여, 고려인의 아픔을 다시 조명하여 희망과 긍지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저는 홍범도장군의 현창사업과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국민들이 해야 될 사명이며 국회의원이 해야 될 책무라는 신념으로 법리와 양심에 벗어나지 않은 범주에

서,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얼마 전 KBS 1TV 프로그램 <도올아인 오방간다> ‘홍범도 편’의 방영으로 홍범도 장군의 삶이 재조명되고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갖고 계신 도올 김용옥 선생님과 함께 기념사업회 활동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봉오동전투를 다룬 영화 ‘전투’(가제)가 개봉되면,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고조된 시의성과 맞물려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의 정기공연으로 9월 20일경에 홍범도 장군 음악극 “극장앞의 독립운동가”를 공연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공연의 열기에 힘입어 홍범도 장군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기념사업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상응하기 위하여 3월 5일 정기총회에서 기념사업회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팀을 구성하여 홍범도 장군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2005년 창립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홍범도 장군의 위상을 독립전쟁의 최고 영웅의 반석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장군의 독립운동 정신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서는 많은 회원이 필요함으로 회원 배가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또한 장군의 독립운동 자료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으므로 연구 그룹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자료 발굴과 연구를 추진하여 독립운동사 정립에 기여해야 됩니다. 앞으로 구성될 T/F에서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오늘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역사를 발굴하고, 정립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국민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 처리 안건>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의결 세입 1억 671만원, 세출 9,713만원, 차기 이월 957만원

이번 총회에서 가결된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따르면, 수입 총액은 1억 671만 1,131원이며, 그 내역은 2017년도 이월 적자가 251만 5,196원, 기부금 수입 5,222만 5,374원, 보조금 수입 5,700만 원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지출액은 9,713만 9,887원으로 봉오동 전승기념 행사 395만 5천원, 탄생150주년 기념행사비 761만 9천원, 카자흐스탄 75주기 추모행사 4,409만 7천원, 고려극장 연극팀 초청비 3,058만 2천원 등 행사비가 8,625만 3천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89%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회보제작 및 우송비 428만 7천원, 흥범도합과 육사 위문금

3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 중 기부금 수입은 임원들의 회비 1,736만 원, 카자흐스탄 추모식 참가자 여비가 3,276만 원이다. 보조금 수입은 보훈처에서 5,200만 원을 지원받고, 제천시에서 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흥헌일, 박형상 감사는 지출관련 서류를 감사하고, 일반행정 분야와 수입과 지출, 증빙서류 등이 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서면 보고하여 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하였다.

2019년 사업계획은 전년과 대동소이,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행사는 봉오동전투 현장에서 개최

2019년도 모든 사업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시행하는 기념사업 분위기에 맞춰 추진하며, 재원 조달을 위하여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봉오동전투 전승 99주년 기념 국민대회는 6월 7일(금)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가보훈처, 광복회, 재향군인회 등의 후원으로 개최한다. 행사는 식전행사로 북춤 공연을 하고, 기념행사에서 흥범도 장군의 무장독립투쟁에 관한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내년 봉오동 현지에서 개최할 전승기념행사의 협조를 위하여 중국 동포 대

표 2명을 초청하기로 했다.

흥범도 장군 순국 76주년 추모식과 학술회의는 10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추모식에 이어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학술회의 대주제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의 역사적 의의로 정했다. 학술회의 세부 주제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역사적 의의와, 청산리 전투의 지휘체제와 전개과정, 독립전쟁 100주년과 역사의식 문제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학자들과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연해주 흥범도 장군 유적지 답사 추진

금년에는 흥범도 장군께서 1908년부터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시까지 독립운동을 벌였던 연해주 지역을 답사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계획은 당초 기념사업회 임원들이 3박4일 동안 답사할 계획으로 국가보훈처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100주년 기념사업이 폭주하여 보류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아 국제교류 차원

에서 검토 중이다.

연해주 유적답사를 구상하게 된 동기는 작년 흥범도 장군 탄생150주년을 맞아 연해주 고려인협회에서 고려문화센터 경내에 지난 9월 23일 흥범도 장군 기념비를 건립하여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4월 5일에 개최될 일제에 의한 고려인 집단 학살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추모행사 참석은 어렵고, 답사 일정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념사업회 소식>

우원식 이사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념사업회 이사장 사직 권고에 부적절하다는 의견 피력

국회 윤리심사위원회에서는 우원식 이사장이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은 것이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사직을 권고하자,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피할 수 없는 저의 숙명”이라고 재심을 요청하였다.

우 이사장은 자문위가 적용한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규정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독립운동가의 기념사업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임 이사장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후임 이사장으로 제의했을 때, 운명처럼 찾아온 자리라고 생각하여 이사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하여 비참한 말년을 보내다 돌아가신 흥범도 장군의 기념사업

은,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에 저항하다 처형당한 독립운동가 김한(金翰) 선생의 후손인 자신이 맡아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10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흥범도장군 탄생15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상민출신의 의병장이고, 독립전쟁의 최고의 지도자이지만 냉전시대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독립운동의 영웅이 대한민국 국회로 들어왔다고 감격의 눈물을 흐르는 모습을 보고, 흥범도 장군 선양사업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마음을 굳혔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리 기념사업회 회원 일동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획일적인 법률 해석에서 벗어나, 우리 현실에서 독립운동 선양사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원식 이사장, 봉오동 전투 영화 “전투” 원신연 감독 등 초청 만찬

우원식 이사장은 지난 2월 28일 저녁, 여의도 “낙원 한식집”으로 흥범도 장군이 지휘한 봉오동 전투를 소재로 제작 중인 영화 “전투”(가칭)의 원신연 감독과 투자 및 배급사 쇼박스의 황순일 대표를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었다.

이 자리에는 기념사업회에서 우 이사장과 황원섭 부이사장, 홍순계 상임이사, 한동건 이사, 서준오 사무총장이 함께 참석하여 진지한 분위기에서 모임을 가졌다.



<원신연 감독>

한편 원 감독은 영화의 제작 의도에 대한 설명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소극적이고 패배의식에 젖어 우리 역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본 정규군을 섬멸한 “봉오동 전투”를 소재로 하여 긍정적이고 자랑스

러운 역사의식을 심어주려고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 때문에 “봉오동”에 이어서 “청산리 전투”를 소재로 제2탄을 제작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원 감독은 또한 흥범도 장군의 소박한 인간성과, 명에 보다 대의를 우선하고, 철두철미한 장군의 전투지휘능력에 감복했다는 소회를 얘기하여, 자리를 숙연하게 했다.

원 감독의 설명에 의하면 “전투”는 가명이며, 주연배우도 극적인 효과를 위하여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영화에는 유해진, 류준열, 조우진, 최유화, 박지환 등 중견 배우들이 출연하며, 개봉은 성수기인 7월 말에 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념사업회 관련 소식>

KBS TV “도올아인의 오방간다”에서 흥범도 장군 관련 방영

KBS 제1 TV에서는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 30분,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도올아인의 오방 간다”를 방영했다.

프로그램은 철학자 도올 김용옥 교수와 영화배우 유아인이 진행한 방송으로 흥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55분 동안 심도있게 조명했다.

도올 교수는 세계 최고의 해전의 영웅인 영국의 넬슨 제독과 임진왜란에서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순신 장군처럼, 독립전쟁에서 일본군들이 흥범도 장군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다고 설명했다. 도올은 유아인 배우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흥범도 장군의 금강산 신계사 수도승 얘기와 이옥구 부인과의 만남, 의병투쟁과

일진회 회원 처단,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카자흐스탄에서의 비참한 생활에 까지 스토리텔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권위주의시대 흥범도 장군의 업적이 폄하된 배경으로 이범석 초대 국무총리를 적지하여 설명했다.

한편 우원식 이사장은 2월 28일 도올 교수를 예방하고, 흥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감사인사를 전했다.

세종문화회관, 흥범도 장군 음악극 공연계획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에서는 2019년도 정규공연으로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흥범도 장군을 소재로 한 음악극을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회에 걸쳐 공연할 예정이다.

연극의 제목은 “극장 앞의 독립군”으로 세종문화회관 산하 9개 예술단체가 합동으로 대작을 선보인다고 한다. 연극의 극작가는 고연옥 선생으로, 대한민국연극상 등 8

개 연극상을 수상한 중견 작가이다. 연극은 카자흐스탄 고령극장에 취직하려고 나타난 초라한 흥범도의 모습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전개하여 가는 전반적인 무장독립투쟁을 회상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우리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공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확산하기 위하여 후원형식으로 참여하려고 협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금강산 신계사 템플 스테이 적극적 관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 청와대에서 남북 종교지도자회의에 다녀온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교지도자 오찬에서, 원행 스님이 제의한 금강산 신계사 템플 스테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원행 스님은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금강산 관광사업 개방에 앞서 신계사 방문사업을 하게 되면 남북 교류의 멋진 선도 사업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금강산 신계사는 흥범도 장군이 1890년 23세 당시 이순신 장군의 후손인 지담 스님의 행자승으로 들어가 임진왜란 시 승병들의 전술과 애국정신을 배웠던 곳이며, 부인인 이옥구 여사를 만났던 유서 깊은 곳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여 템플스테이가 시작된다면 기념사업회 임원들이 우선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남양홍씨종친회, 크즐오르다 장군 묘지 관리비 지원

작년 10월 카자흐스탄 추모행사에 참여했던 홍성중 이사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남양홍씨남양군파대중중회 회원들과 협의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흥범도 장군의 묘지를 관리하는 크즐오르다 고려인현회 김엘레나 지회장

에게 매년 1천 불씩 송금하기로 결정했다.

홍 회장은 흥범도 장군에 대한 현창과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종친회 회원을 대상으로 1만 원씩 소액 다수 방식으로 모금하여 매년 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원 투고>

“흥범도 장군의 상고사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귀소본능 이었다.”



정 내하(기념사업회 이사)

철새 때가 비행을 하고 있다. 카메라는 유독이 한 마리의 철새에 초점을 맞춘다. 아프리카서 출발한 철새들의 긴 여행의 종착역은 독일 북부 한마을이다. 앵글의 주인공 새가 고향을 찾은 사람처럼 지친 표정도 없이 지붕 위 굴뚝에 사뿐 내려앉는다.

기적의 비행이요 회귀이다. 이 지붕 위가 새가 1년 전 아프리카로 출발했던 출발역이기 때문이다. 다리에 달려있던 위치 추적기가 철새의 수천 킬로의 장거리 비행과 수 천 만년의 회귀본능의 비밀을 밝혀내는 순간이다. 인간의 첨단 과학 기술인 ‘GPS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버금가는 길 찾기 능력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항공 역학적 원리를 이미 체득하고 있는 철새들을 보면서, 창조주의 섭리를 다시 깨닫게 된다.

또한 인간도 마찬가지로 고향회귀 본능이 있고 특히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뿌리와 조상을 찾게 된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형제들이 가뭄과 기근의 흉년이 들어 이집트로 피신을 가고 수 백 년을 파라오의 통치에 살다가 지도자 모세를 만나 가나안을 중심으로 고향을 찾아 떠나는 엑소도스도 인간의 회귀본능일 것이다.

수십만 명이 철새들처럼 뇌 속에 창조주가 만들어준 GPS를 장착하고 수백 킬로 떨어진 본향을 찾아 떠난 대사건이다. 성경을 읽는 이방인들도 이 사건에 열광하며 감동을 받는 것도 인간의 본성은 같기 때문일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친인척의 노인 분들이 족보를 따지고 누구 몇 대 손이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올드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 그 어른들을 따라 행동을 하며, 매년 정월에 목포 앞 섬 압해도의 조상 묘를 찾아뵙는 나 자신을 보고 놀랄 때가 있다.

남들에게 신나서 당나라 시절 유배오신 할아버지가 중국의 재상이며 그분들 후손인 정약용선생과 형제분들을 자랑하곤 한다. 이러한 나의 변화도 한가문의 자손의 귀소본능을 보이는 행동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기리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

겠지만 민족적인 뿌리를 향한 귀소본능도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

흥범도장군 기념 사업회의 이사를 하면서 작년에 카자흐스탄의 끄즐오르다시와 알마티의 흥범도장군의 발자취를 일부 따라가며 기념식을 했을 때 우리가 민족의 뿌리와 선열들을 기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자연스런 행위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흥장군의 일대기록물 중 STB 상생방송서 아주 의미가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흥장군이 한민족 상고 역사서 ‘환단고기’와 연관된 기록물을 발견한 것이다. ‘환단고기’는 1911년 계연수가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하나로 묶어 편찬한 역사서이며 재야 사학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책을 편찬한 계연수가 환단고기는 흥범도 오동진 두 벗이 자금을 댔다는 사실을 목판에 새겨서 인쇄하였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흥범도 장군은 최재형 선생과 함께 권업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며 권업신문의 주필인 민족사학자 신채호와 교류를 한다. 또한 이 당시 흥장군과 함께 했던 안중근 류인석 이상설 등과 함께 민족상고사 복원과 민족정신 함양에도 노력했다.

계연수의 제자이며 환단고기를 세상에 알린 이유립의 평전을 보면 계연수 흥범도 이상룡 등 28명이 체첸혈맹을 맺고 민족주의 교학과 사학을 정립하므로 항일독립통일노선을 확대를 위한 단학회를 결성한다. 또한 흥범도 장군은 단학회 기관지에도 계연수 신채호와 함께 참여하였다.

당시 만주에서도 역사중심으로 우리 민족사를 회복하려고 했던 심보장운동을 전개한 흥장군은 단순히 항일무장투쟁의 독립군 수장으로만 인식되어는 안 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흥범도 장군의 민족 상고사(上古史)에 대한 관심과 계연수, 신채호 선생을 비롯한 민족사학자와의 교류를 통한 역사의식의 확립과, 애국개몽운동을 통하여 민족의 뿌리를 찾고 독립운동 정신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귀소본능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북로군정서 및 대한독립군단, 백포 서일 총재 홍범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공적 재평가되어야

홍성덕(기념사업회 이사)



〈흑룡강성 밀산시, 서일 총재 기념비〉

백포(白圃) 서일(徐一, 1881~1921)은 한국독립운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지도자이다.

만주 최초의 무장독립운동 단체인 중광단(重光團)을 조직한 이후, 북로군정서와 대한독립군단의 총책임자로서, 청산리 대전투를 승리로 이끈 최고의 지도자이며,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독립운동가였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총장으로서, 대한민국 독립군의 총수로서 혁혁한 업적을 남겼다. 백포는 단군의 역사를 이어받은 대종교의 종사로 나철 제1대 종사의 법통을 이어 받아 민족 의식을 선양하는데 앞장섰다.

백포는 1881년 2월 26일 함경북도 경원군 안농면 금희동에서 서재운(徐在云)의 독자로 태어났다. 1890년 10세 때부터 고향인 함경도 경원에서 한학을 공부하였다. 그 후 서일은 1900년 초부터 다시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경성군 소재 함일실업학교(咸一實業學校)의 전신인 사숙(私塾)에 입학하여 1902년 졸업하였다.

백포는 고향에서 10년간 계몽운동과 교육을 통한 구국 활동에 헌신하였다. 1911년 3월 두만강을 넘어오는 의병의 잔류 병력과 대종교 애국청년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단체 중광단(重匡團)을 조직하고 단장에 취임하였다.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서일은 ‘군 정부’를 ‘북로군정서’로 이름을 바꾸고 동시에 임시정부 산하로 들어가 실질적 군무총장이 되었다.

북로군정서는 서간도의 ‘서로군정서’와 짝을 이루어 간도 독립군의 주축을 이루었다. 북로군정서의 총재는 서일, 부총재는 백취 현천목, 사령관은 김좌진이었다. 1920년 9월 9일, 제1회 사관연성소 졸업식이 거행되어 298명

의 사관이 배출되었다. 일반 병사들은 징모국을 통하여 모집하여 1920년 10월경에는 간부와 병사를 합하여 약 1,600여 명의 인원을 거느린 유력한 무장 독립운동 단체로 발전하였다.

일본군이 간도로 들어오기 전부터 북로군정서는 주력 부대를 백두산록의 이도구(二道溝)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홍범도(洪範圖, 1868~1943)가 이끄는 부대도 이 지역으로 이동해 있었다.

10월 21일, 백운평 부근에서 아즈마(東) 소좌가 이끄는 일본군 부대를 만나 싸웠다. 독립군 부대들은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청산리 일대를 이동하면서 일본군과 전투했다. 이 중 백운평, 천수평, 맹개골, 만록구 전투는 북로군정서가 단독으로 수행하여 승리하였고 어랑촌, 천보산 전투는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수행하였다. 이 전투를 청산리 대첩이라 하며 일본군은 연대장을 포함하여 1,200여 명이 사살되었고 독립군 측의 피해는 미미했다. 임시정부의 ‘군무총장’이라고 불린 서일이 직접 임시정부에 청산리대첩을 보고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청산리대첩의 영웅은 서일총재, 홍범도장군과 김좌진장군이다. 청산리 독립전쟁 후 일본군의 추격이 계속되자 북로군정서의 전 병력이 북만 밀산(密山)으로 옮겨갔으며 국민회의 안무군(安武軍)·홍범도군(洪範圖軍)·광복단(光復團)·도독부(都督府)·의군부(義軍府)·혈성단(血誠團)·야단(野團)·대한정의군정사(大韓正義軍政司) 등 모두 3,500명의 병력을 이곳에 집결하여 대한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을 조직, 총재로 추대되어 독립군단을 지휘했다.

그 후 대한독립군단은 노령(露嶺) 자유시(自由市)로 이주하여 1921년 자유시참변으로 부하들마저 무참히 희생됨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이튿날인 8월 27일(음력) 아침 마을 뒷산 산림 속에 정좌하고 자결 순국하였다. 서일총재의 유해는 청산리가 멀리 보이는 작은 구릉에 대종교 제1대와 제2대 교주들인 나철, 김교헌 묘소와 함께 “삼종사 묘소”를 이루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임원동정…

○우원식 이사장



1월 2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문제와 관련하여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이해찬 당대표 표창을 받았다. 2월 15일에는 '5·18 망언과 극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주최하여 여야 4당 의원 143명이 참여하고 4당 원내대표가 연대하기로 했다.

○이종찬 명예이사장



서울시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 위원장은 3월 1일 덕수궁 앞에서 광화문까지 고종황제의 손자인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같이 대형 태극기를 펼쳐들고 '고종 장례 행렬 재현 만세 행진'을 주도하였다.

○김유진 고문



4·19혁명유공자회 상임이사는 올해 4·19혁명 59주년을 맞아 지난 2월 8일에 대구에서 총궐기 대회를 시작으로 3월 8일 대전, 3월 15일 마산, 4월 19일은 고려대학교에서 4·19혁명 정신을 되새기는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형상 감사



박형상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재외동포재단 제9호(2018년 겨울호)에 흥범도장군 75주년 추모행사 방문기를 기고했다. 크즐오르다 흥범도장군 묘지참배 행사와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 고려극장에서 개최된 추모식과 연극 공연 등 모든 행사에 대한 소감을 상세하게 피력했다.

○홍헌일 전 감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자문위원은 3월 1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서대문감옥 희생자와 투옥자에 대한 추모식과 3·1운동정신 구현을 위한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했다.

○김경호 이사



대구 자문대사는 지난 3월 1일 서울대학교분당병원의 모스크바 협력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 병원에서는 작년 12월 26일 모스크바 스콜 코보 국제의료 특구에 스마트병원 건립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영철 이사



도봉문화원장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도봉100인 평화 음악회를 지난 2월 28일 창동역사문화공원(도봉구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창동문화공원은 김병로, 송진우, 정인보 선생 동상과 "평화의 소년상"이 위치하고 있어 비폭력 평화정신의 메시지를 담은 도봉구민 100명이 출연하는 '독립운동 저항시 낭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오세중 이사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2월 22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한변리사회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변호사의 변리사 무시험 자동자격 제도 등 지식재산 분야의 일제 잔재 청산을 강조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선언문을 낭독했다. 같은 달 11일에는 역삼동과총회관에서 영국변리사회와 정기교류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최신 지식재산권 동향과 판례 정보를 나누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내하 이사



(주)미네날하우스 대표이사는 3월 1일부터 8일까지 성남시청 1층 로비 및 광장에서 개최된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전'에 참석하였다. 또한 성남시에서 대표적인 만화가 30여 명의 협조를 받아 독립운동가 33인의 얘기를 웹툰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흥범도 장군을 포함시키도록 협조하였다.

○홍성종 이사



남양홍씨남양군과대중중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4일 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 남양홍씨회보 집필위원 10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 5일에는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의사기념관을 종친회원 15명과 같이 참관하며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겼다.

○홍이표 이사



'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 모임'(애지모) 대표는 지난 1월 6일부터 주1회, 4주 과정으로 애지모 학부모 및 청소년 비전스쿨 학생 50여명이 참석하여 인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월 18일에는 코리아나 호텔에서 애지모 독립운동 유공자 후원회 조찬모임을 개최하고 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곽승지 교수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지난 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으로 우원식 이사장을 예방하고 2020년 봉오동전투 전승100주년 기념행사에 관하여 현지 고려인들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